

“꼭 돌아오겠다” ‘무한도전’ 13년 진심 담긴 뜨거운 안녕



MBC 리얼 버라이어티쇼 ‘무한도전’ 시즌 1이 13년의 토요일 스페셜 코멘터리 3부작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무한도전’ 13년의 토요일 스페셜 코멘터리 방송은 지난 2005년 첫 방송부터 2018년 마지막까지 ‘무한도전’이 시청자들과 함께한 희로애락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며 웃음과 감동 가슴 찡한 추억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는 마치 ‘무한도전’ 멤버들과 제작진이 시청자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특히

13년의 토요일 스페셜 코멘터리 3부작 막 내리 역사 되돌아보고 웃음·감동·추억들로 가득

이번 방송 말미 화면 속에는 ‘무한도전’ 제작진이 시청자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까지 담겨 있었다. 13년간 토요일 저녁 웃음을 책임지며 ‘무한도전’의 레전드가 된 특집들은 여전히 안방극장에 큰 웃음을 선사했으며, ‘무한도전’의 레전드는 역시 ‘무한도전’의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줬다. 유재석은 꼭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며 시청자들에게 ‘무한도전’의 도전은 계속될 것임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무한도전’은 지난달 31일 시즌 1 종영을 한 후, 약 3주간 13년의 토요일 스페셜 코멘터리 3부작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안방극장에 ‘무한도전’과 함께했던 잊지 못할 웃음과 감동의 추억을 선물했다. ‘무한도전’ 13년의 토요일 스페셜 방송은 지난 2005년 첫 방송부터 2018년 마지막 방송까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레전드 특집들과 ‘무한도전’ 멤버들과 그리고 제작진이 뽑은 특집들로 채워졌다. 제 1탄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도전들로 가득 찼던 2005년 ‘무모한 도전’부터 예

내내 멤버로 활약한 모습들로 시청자들을 추억에 젖게 만들었다. 이어 방송 말미에는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제껏 말하지 못한 진심이 담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양세형은 “‘무한도전’에서 배운 거 잘 활용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며 앞으로 다짐을 전했고, 조세호는 자신의 2세에게 당당히 ‘무한도전’ 멤버였다고 말할 것이라며 아쉬움과 함께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하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으면 ‘무도’의 존재 이유가 없었다. 마지막 순간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명수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기억이 난다. 지나간 편 방송 좀 보내달라. 고생했다고”라며 웃음을 보였다. 정준하는 “아직도 실감이 나질 않는다. 또 어떤 모습으로 인사드릴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무한도전’을 13년간 이끈 유재석은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큼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무한도전’은 꼭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시청자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무한도전’ 시즌 1 후속으로는 신개념 대국민 출제 퀴즈쇼 ‘뜻밖의 Q’가 방송된다.

4월 가수 브랜드평판 워너원·방탄소년단·트와이스 순

가수 브랜드평판 2018년 4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워너원 2위 방탄소년단 3위 트와이스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18년 3월 20일부터 2018년 4월 21일까지의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103,939,104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분석을 하였다. 지난 3월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98,265,135개보다 5.77% 증가했다. 가수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음원을 선보이고 있는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분석을 하여 참여가

치, 소통가치, 미디어가치, 커뮤니티가치로 분류하고 공부정비율 분석과 평판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된 지표이다. 브랜드 평판분석을 통해 브랜드에 대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2018년 4월 가수 브랜드평판 30위 순위는 워너원,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레드벨벳, 아이린, 블랙핑크, 엑소, 아이유, 워너, 오마이걸, 빅뱅, 모모랜드, 청하, 볼빨간사춘기, 편지, 세븐틴, 마마무, 10cm, 빌로, 비투비, 우원재, 인피니트, 하이리이트, 수지, 선미, 다비치, 갯세븐, 헤이즈, 로이킴, 박효신 순으로 분석되었다.

1위, 워너원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김재환, 오성우, 박우진, 라이관린,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성운) 브랜드는 참여지수 1,327,460 미디어지수 2,596,666 소통지수 3,823,343 커뮤니티지수 4,307,401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2,054,871로 분석되었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10,926,118보다 10.33% 하락했다. 2위, 방탄소년단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뷁, 정국) 브랜드는 참여지수 2,222,300 미디어지수 1,511,012 소통지수 2,545,227 커뮤니티지수 1,744,739가 되면서 브랜드평



판지수 8,023,277로 분석되었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11,076,551보다 27.57% 하락했다. 3위, 트와이스 (나연, 정연, 모

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쫘유) 브랜드는 참여지수 1,966,564 미디어지수 2,539,422 소통지수 1,671,060 커뮤니티지수 1,768,89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945,940로 분석되었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3,578,235보다 122.06% 상승했다. 4위, 레드벨벳 (웬디, 아이린, 슬기, 조이, 예리) 브랜드는 참여지수 1,763,030 미디어지수 2,176,278 소통지수 1,539,586 커뮤니티지수 1,561,25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040,148로 분석되었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5,151,903보다 36.65%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18년 4월 가수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워너원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가수 브랜드 카테고리별 분석해보니 지난 3월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98,265,135개보다 5.77%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 참여 16.85% 상승, 브랜드 이슈 22.16% 상승, 브랜드 소통 6.91% 하락, 브랜드 확산 2.83%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8년 4월 가수 브랜드평판 1위 워너원 브랜드는 키워드 분석에서는 ‘귀엽다, 고맙다, 소중한다’가 높게 나타났고, 링크 분석은 ‘콘서트, 강다니엘, 약속해요’이 높게 나타났다. 워너원 브랜드에 대한 긍정비율을 분석하면 89.66%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브랜드 평판의 변화상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브랜드평판지수는 2018년 3월 20일부터 2018년 4월 21일까지의 워너원,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레드벨벳, 아이린, 블랙핑크, 엑소, 아이유, 워너, 오마이걸, 빅뱅, 모모랜드, 청하, 볼빨간사춘기, 편지, 세븐틴, 마마무, 10cm, 빌로, 비투비, 우원재, 인피니트, 하이리이트, 수지, 선미, 다비치, 갯세븐, 헤이즈, 로이킴, 박효신, 갯세븐, 아이린 (B.I, 김진환, BOBBY, 송윤형, 구준회, 김동혁, 정찬우) 브랜드는 참여지수 166,301 미디어지수 1,172,700 소통지수 2,470,638 커뮤니티지수 1,189,013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988,652로 분석되었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7,994,701보다 37.48% 하락했다.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예매량 60만장 돌파 ‘광풍’



그야말로 예매 광풍이다. 22일 영진위 통합전시장에 따르면, 개봉

을 3일 앞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는 이날 오전 11시 35분 현재 86.2% 예매율로 1위를 기록했다. 예매량은 60만장을 넘어섰다. 이번 추세라면 개봉 직전에 90% 예매율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블랙팬서’보다 2배 높은 예매량을 보이는데 이어 일부 극장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북미에선 개봉 첫주 2억 5,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2억 4,700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과연 ‘어벤져스:인피니티 워’가 전 세계에서 어떤 흥행 신기록을 세울지 주목된다. 마블 스튜디오 10주년의 클라이맥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기존 어벤져스 멤버들과 새로운 히어로들이 조합해 포스터에만 22명의 히어로가 등장해 화제를 불렀다. 여기에 2012년 ‘어벤져스’부터 출현을 예고해 온 마블 최강의 빌런 타노스가 드디어 전면에 나서며 사상 가장 압도적인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의 안소니 루스, 조 루스 감독의 지휘하에 영화 사상 최초로 전체 분량을 IMAX로 촬영, 스크린을 남김없이 채우는 스케일까지 일찍부터 2018년 전 세계 최고의 기대작으로 자리매김했다. 4월 27일 개봉.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음력 3월 8일)

<p>▶ 쥐띠 3, 4, 10월생 여성은 하는 일이 더욱 잘 된다. 놓고 있었다면 뭔가 시작해 바쁜 한 해가 될 듯하다. 기, 사, 오, 천 성씨 사소한 일로 가정에서 불화가 있겠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정에도 시간을 배려해 대화의 장을 열라.</p> <p>▶ 돼지띠 고집을 꺾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다. 2, 5, 8, 11월생 지난해 이루지 못 한 직업 전환을 곧 좋은 쪽으로 이룬다. 애정은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을 때가 대운이다. 친할수록 금전 거래를 멀리하라. 기, 오, 천, 사 성씨 의류, 생산, 곡물직은 호전한다.</p> <p>▶ 호랑이띠 기, 모, 바, 사 성씨는 남에게 줄 것은 없고 받을 것만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 2, 3, 12월생 무언가가 찾으려 먼 거리에서 찾지 말라. 가까운 곳에 있다.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호주머니에 있는 것마저 내준다. 동쪽이 길하다.</p> <p>▶ 토끼띠 1, 3, 12월생 기본 나는 대로 한 말 탓에 당신 뜻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4, 7, 9월생 욕심은 금물이다. 하나로 만족하라. 소, 용, 닭띠가 당신을 보고 있다. 있는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p>	<p>▶ 용띠 기, 사, 지, 흥 성씨는 직장에서는 승진 아니면 영전수 있다. 사업자라면 동업자 없이도 잘 되고, 자영업자는 행운이 깃든다. 어수선한 주변을 정리하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p> <p>▶ 닭띠 1, 3, 9월생 남의 눈치에 시달리는 격이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기, 오, 천성씨 당신의 성실함은 하늘이 안다.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쪽과 남쪽 귀인 도움받을 듯하다. 웃음꽃이 핀다.</p> <p>▶ 말띠 지출만 많다. 기, 바, 사, 오 성씨는 힘겹겠으니 인내하라. 3, 4, 8월생 가족을 진실한 애정으로 대하면 사업도 발전하고 안정을 찾는다. 양, 원숭이, 개띠를 피하고 서쪽 일을 추진하라. 행운이 온다.</p> <p>▶ 양띠 바, 사, 오, 지 성씨는 건강과 가정을 원할히 해야 한다. 남쪽과 서쪽 일을 해결해야 한다. 동서남북으로 뛰는 길 밖에 없다. 토끼, 양, 닭띠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 동쪽으로 가는 것은 괜찮으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일이 꼬인다.</p>	<p>▶ 용띠 기, 오, 흥 성씨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수확한다. 허영심을 버리고 계획대로 추진하라. 2, 6, 7월생 기, 바, 사 성씨에게 진심이 요구된다. 기존에 부부 갈등을 조심하라. 욕심을 부리면 사랑 탓에 우는 날이다. 서쪽으로 가지 말라.</p> <p>▶ 닭띠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장래를 생각하라. 2, 3, 5월생 기, 리, 오, 천 성씨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존경과 순종하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 당신이 여자라면 지금 하는 사업 외에 또 구상하는 사업이 있으면 당장 시작하라. 대성한다.</p> <p>▶ 개띠 기, 지, 천 성씨 생각보다 수입이 적다 안달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 때가 되면 더 크게 수확한다. 1, 3, 6월생 드넓은 자제로 함께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내가 직접 행동하라. 건강은 신경을 너무 쓰지 말고 근신하는 것이 상책이다.</p> <p>▶ 돼지띠 기, 오, 흥 성씨는 과감히 변신해 날개를 펴라. 기, 천, 바 성씨 함께 있는 사람과 애정적으로 벽을 쌓는 격이다. 2, 10, 11월생 자존심이 무척 상하게 된다. 서쪽은 피하라. 흰색으로 단장하면 자신감이 생긴다.</p>
---	--	--